

[증권/보험 주간동향]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선별적 종목 선정이 필요한 시기

18.09.03(월)~18.09.07(금)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W	1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282	1,372,375	1.0	9.2	11.2	-1.8	-0.8	-7.7	-5.0	-7.5	336	-1,358	50	1,780	8,069
KOSDAQ	819	160,776	2.6	19.7	13.6	0.2	4.4	-7.8	-2.6	2.6	-190	116	10	469	2,189
보험	17,162	19,337	0.6	8.7	7.2	-0.1	-6.2	-7.2	-14.9	-18.8	3	-12	-3	14	93
증권	1,818	18,268	0.8	8.7	9.3	-1.7	0.8	-16.7	-12.5	-8.5	-17	12	-0	14	90
삼성생명	93,000	18,600	0.6	8.1	7.1	0.5	-5.5	-11.4	-21.2	-25.3	-9	5	-7	4	18
한화생명	4,885	4,243	0.4	6.9	5.8	0.7	-5.1	-14.4	-21.6	-29.3	-1	1	-0	1	5
ING생명	32,850	2,694	0.7	7.7	9.5	-5.6	-23.1	-19.1	-33.9	-38.5	-4	1	-1	0	4
동양생명	6,210	1,002	0.4	9.6	4.3	-5.5	-16.2	-13.9	-11.2	-18.3	-1	-0	-1	0	0
삼성화재	267,000	12,649	1.0	12.0	8.7	0.8	-3.6	1.1	-3.4	0.0	10	-12	4	2	21
DB손해보험	64,500	4,567	0.9	6.7	13.0	0.8	-5.3	4.7	-3.6	-9.4	7	-3	-0	4	19
현대해상	36,950	3,303	0.8	6.1	14.2	-0.7	-4.2	3.9	-1.7	-21.4	3	-3	0	2	14
메리츠화재	18,250	2,075	1.1	7.7	14.9	0.0	-2.7	-9.0	-16.7	-22.3	1	-0	2	0	5
한화손해보험	6,840	798	0.5	5.4	11.2	-1.9	-6.2	0.3	-18.5	-16.0	-0	-0	0	0	1
삼성증권	31,350	2,800	0.6	7.6	8.1	-3.1	-2.6	-17.6	-19.3	-14.3	-10	-1	-4	2	11
미래에셋대우	8,190	5,392	0.7	9.1	7.9	-0.4	1.4	-14.7	-11.0	-10.9	-2	4	-1	4	29
NH투자증권	13,250	3,729	0.8	9.5	8.5	-1.5	2.7	-21.4	-5.4	-4.7	5	3	2	5	22
한국금융지주	68,200	3,801	0.9	6.7	14.3	-4.3	-2.6	-29.4	-12.6	-1.2	2	-4	3	3	12
키움증권	89,100	1,969	1.1	7.4	16.6	-3.4	-2.1	-27.3	-9.6	1.7	-7	2	-1	1	9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 강세를 시현하였음.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인하여 기술주의 하락으로 시장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 계약이 체결된 ING생명과 후순위채 발행의 수요가 부진하였다는 뉴스로 동양생명이 악세를 시현하였음 ▶ 금감원, 보험사 CEO 간담회: 서로의 입장만 표명한 수준으로 평가함. 감독당국의 규제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결국은 보험사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완화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ING생명 매각: 동사의 매각 결정으로 커버리지에서 제외함. 소액주주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1) 신한생명과의 합병이 결정된다면 주당 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배당성향 50%이상 2019년 상반기 까지 공시), 2) 공개매수를 결정한다 하여도 시가와 경쟁사 Valuation이 중요한데 동사의 Valuation은 여전히 경쟁사 대비 높아 공개매수가격이 높지 않을 가능성, 3) 신한금융지주 주식과의 스왑 결정시 교환비율이 비 우호적인 가능성임. 다만 스왑 기준일부터는 신한금융지주와 동일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임
증권	증권업종 약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KOSPI가 1.8%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지난 2주동안의 증권업종 반등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전주에 출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증권업종 8월 지표 점검: 8월 일평균거래대금은 8.8조원으로 7월대비 2.1%, 2분기대비 37.0% 감소하였고 ELS 조기상환은 2.9조원으로 7월 1.7조원대비 증가하였지만 2분기 평균 4.9조 원 대비로는 매우 낮은 수준을 시현하였음. 조기상환이 감소하면서 ELS 발행 또한 감소하고 있음. 2분기 월평균 발행규모는 8.2조원이었지만 7월 5.2조원, 8월 4.4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다만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Trading 손익의 부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월에 국고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0.0bp, -21.5bp 하락하였음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QoQ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누계		3Q17	4Q17	1Q18	2Q18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H+KOSDAQ	9.5	5.3	14.3	15.0	12.4	9.0	8.8	9.5	8.6	8.2	11.8	13.8	13.9	8.9	-36.0
KOSPI	5.2	-2.9	7.8	9.1	7.5	5.5	5.2	5.2	-0.6	5.2	6.0	7.0	8.1	5.4	-34.3
KOSDAQ	4.3	17.0	6.5	5.9	4.9	3.4	3.5	4.3	22.3	3.0	5.8	6.8	5.8	3.6	-38.4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H+KOSDAQ	11.5	16.5	12.2	12.5	11.8	10.8	11.3	11.5	1.7	8.3	9.8	11.3	11.8	11.5	-2.8
KOSPI	5.8	29.1	6.0	6.2	6.0	5.5	5.7	5.8	1.6	4.0	4.5	5.4	6.0	5.8	-3.4
KOSDAQ	5.7	6.0	6.2	6.3	5.8	5.3	5.6	5.7	1.9	4.3	5.4	5.9	5.8	5.7	-2.1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72	-9.7	1.85	1.85	1.85	1.83	1.73	1.72	-0.2	1.53	1.85	1.89	1.85	1.72	-12.3
3년	1.91	-20.3	2.22	2.20	2.13	1.91	1.91	1.91	0.2	1.89	2.13	2.22	2.12	1.91	-21.0
5년	2.08	-26.0	2.49	2.48	2.35	2.36	2.10	2.08	-2.7	2.08	2.35	2.43	2.35	2.08	-27.6
10년	2.26	-23.0	2.72	2.70	2.56	2.57	2.31	2.26	-4.8	2.37	2.47	2.62	2.56	2.26	-29.3
악정 MS	%	17년대비, %p							%p					%	%p
삼성증권	6.1	0.2	6.4	6.1	6.0	6.1	6.0	6.1	0.1	6.2	6.0	6.2	6.2	6.0	-0.1
미래에셋대우	12.1	-0.5	13.2	12.8	12.3	12.4	12.2	12.8	0.6	12.7	13.2	13.3	12.8	12.3	-0.5
NH투자증권	6.9	0.9	6.4	6.4	6.4	6.5	6.9	6.7	-0.2	5.7	6.4	6.3	6.4	6.7	0.3
한국금융지주	5.5	-0.3	5.5	5.2	5.1	5.3	5.4	5.4	-0.0	6.1	5.8	5.7	5.3	5.4	0.1
키움증권	17.2	0.7	18.5	18.2	17.9	16.9	17.4	17.8	0.4	15.3	17.4	17.5	18.2	17.1	-1.1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 금주에도 보험업종은 방어주의 역할 정도만 기대됨 - 자동차보험료, 실손보험료, 암보험 등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7~8월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우리는 2위권 순보사를 비롯하여 순애보험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함. 그 이유는 지금의 불확실성의 대부분이 올해안에 해결될 것이고 내년의 이익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임. 정비수가 관련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10월중 마무리될 것이고 9~10월 KDI의 실손보험관련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G.A 채널에 대한 높은 시책을 규제를 통해 정비될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감독당국은 초년도 지급수수료가 연간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책을 포함하여 1,500%~1,700%인 수당이 1,200% 수준으로 하락하며 과당 경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우리의 최선호 종목은 DB손보와 현대해상이며 삼성화재 또한 관심 종목으로 유지함
증권	- 금주 중 미국의 중국에 대한 2천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인이 시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추가로 2,670억달러 관세를 고민한다는 뉴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될 여지는 낫다고 생각함 - 하지만 8월에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였고 9월에도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증권사들의 채권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이는 Trading 부분의 부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임. - 금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 여부에 따라 증권업종의 등락이 결정되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대형증권사에 대한 저가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채권평가이익의 도움은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의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임. 채권보유규모가 크게 상대적으로 적극적 Trading을 하는 증권사는 경험 상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구) 대우증권임. 우리는 증권업종에서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한 선호를 유지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9월 4일	미국	ISM 제조업지수	58.1	57.7
	미국	캐나다와 나프타 재협상/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수수료로 月보험료 3배 쟁기는 보험대리점… 보험료 인상 불러 (동아일보) 금감원 9월 중 20곳 현장 점검, 경제신문에서만 보도되던 내용이 총양 일간지로 확대되고 있음</p> <p>▶ 증권사 9월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 적용…금리 변화는 (머니투데이) 고금리 지역에 증권사가 이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적용하지만 한국투자증권만 VIP고객에서 0.2%p 인하로 대응, 향후 증권사의 조달금리 공시 등을 앞두고 있어 신용이자를 인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p> <p>▶ 해외 보폭 넓히는 코리안리, 홍콩 로이즈 보험 라이선스 취득 (서경) 홍콩법인이 설립 23년 만에 로이즈 신디케이트 관련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p> <p>▶ 증기특화증권사 기업대출시 자본건전성 부담 완화한다 (뉴스1) 증기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기준 전액 차감→최대 32%까지만 순자본서 차감</p> <p>▶ 신한금융 옛 ING생명 인수 막바지…5일 이사회서 논의 (연합뉴스) 신한금융은 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렌지라이프 인수안을 논의할 예정</p> <p>▶ 금리 최고 3%… 증권사 발행어음에 4조 몰렸다 (조선일보) 적립식 발행어음 금리 2.5%~3.0%, 최근 삼성증공이 NH증권에서 2년만기로 500억원 대출/발행어음 사업과 연계</p> <p>▶ 부활한 종합검사 첫 타자는 'NH농협·미래에셋대우' (조선비즈) 첫 타자로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을 선정</p> <p>▶ "주가 낮을 때 더 발행하자"…증권사 ELS 잔액 고공행진 (인포맥스) 조기상환은 감소, 발행이 감소하였지만 조기상환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임</p> <p>▶ 미래에셋벤처,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IPO 공식화(더밸) 지난달 31일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상장 예정 주식 수는 697만주이며 공모 예정 주식 수는 173만주임. 대표 주관은 KB증권</p> <p>▶ 즉시연금·암보험 분쟁조정위원회 18일 열린다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안건을 심의</p> <p>▶ 금감원, 車보험 특약 전수 조사 "불완전판매 요소 살핀다" (노컷경제) 보험사별로 특약 명칭 제각각, 소비자 혼란 방지 위해 '정비', 특약요율 대대적 정비, 손해율 낮은 상품은 보험료 낮출 방침</p> <p>▶ 해자펀드 설정액 23조 돌파, '레포펀드' 성장 지속 (더밸) 교보증권, 신금투, 토러스 등이 레포펀드를 내놓으면서 설정액이 증가, PBS 계약고는 삼성 6.0조원, NH 4.8조원, 미래대우 3.7조원, 한국 3.7조원, KB 3.6조원 등임</p> <p>▶ 보험 약관 쉽고 명확하게…금감원 '혁신TF' 가동 (연합) 금감원의 보험사의 제도 및 관행 혁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W	1M	3M	6M	YTD
한국	KOSPI	2,282		1.0	9.2	11.2	3.1	-1.8	-0.8	-7.7	-5.0	-7.5
	보험	17,162		0.6	8.7	7.2	0.7	-0.1	-6.2	-7.2	-14.9	-18.8
	삼성생명	93,000	16.5	0.6	8.1	7.1	0.7	0.5	-5.5	-11.4	-21.2	-25.3
	한화생명	4,885	3.8	0.4	6.9	5.8	0.4	0.7	-5.1	-14.4	-21.6	-29.3
	ING생명	32,850	2.4	0.7	7.7	9.5	1.1	-5.6	-23.1	-19.1	-33.9	-38.5
	동양생명	6,210	0.9	0.4	9.6	4.3	0.3	-5.5	-16.2	-13.9	-11.2	-18.3
	삼성화재	267,000	11.2	1.0	12.0	8.7	1.3	0.8	-3.6	1.1	-3.4	0.0
	DB손해보험	64,500	4.0	0.9	6.7	13.0	1.2	0.8	-5.3	4.7	-3.6	-9.4
	현대해상	36,950	2.9	0.8	6.1	14.2	1.2	-0.7	-4.2	3.9	-1.7	-21.4
	메리츠화재	18,250	1.8	1.1	7.7	14.9	1.4	0.0	-2.7	-9.0	-16.7	-22.3
	한화손해보험	6,840	0.7	0.5	5.4	11.2	0.9	-1.9	-6.2	0.3	-18.5	-16.0
	증권	1,818		0.8	8.7	9.3	1.0	-1.7	0.8	-16.7	-12.5	-8.5
	삼성증권	31,350	2.5	0.6	7.6	8.1	0.9	-3.1	-2.6	-17.6	-19.3	-14.3
	미래에셋대우	8,190	4.8	0.7	9.1	7.9	0.7	-0.4	1.4	-14.7	-11.0	-10.9
	NH투자증권	13,250	3.3	0.8	9.5	8.5	0.9	-1.5	2.7	-21.4	-5.4	-4.7
	한국금융지주	68,200	3.4	0.9	6.7	14.3	1.1	-4.3	-2.6	-29.4	-12.6	-1.2
	키움증권	89,100	1.7	1.1	7.4	16.6	2.3	-3.4	-2.1	-27.3	-9.6	1.7
일본	Nikkei225	22,307		1.7	15.7	10.6	2.1	-2.4	0.0	-1.7	3.9	-2.0
	보험	989		0.8	10.1	7.0	0.9	-4.0	-2.0	-6.2	2.3	-6.7
	Dai-ichi Life Holdings	4,338	27.7	2.4	50.6	4.7	2.6	0.0	-3.3	13.1	13.5	47.7
	Japan Post Insurance	2,443	13.2	0.7	16.0	4.6	0.1	-2.0	2.3	-1.5	-6.9	-7.8
	Tokio Marine Holdings	5,099	34.4	1.0	14.0	7.3	1.1	-2.6	-3.7	-6.5	4.4	-0.8
	증권	382		0.8	9.7	7.4	0.6	-1.8	-0.0	-6.7	-9.5	-12.1
	Nomura Holdings	507	16.6	0.6	7.0	9.0	0.6	-0.3	-2.5	-11.8	-20.2	-23.7
	Daiwa Securities	648	9.9	0.8	10.0	8.6	0.6	-2.8	-2.0	0.4	-4.4	-8.4
	SBI Holdings	3,015	6.1	1.5	13.1	11.9	1.2	-1.6	1.0	4.7	10.7	28.0
중국/홍콩	Hang Seng	26,973		1.2	11.0	12.9	1.2	-3.3	-4.9	-12.9	-13.0	-9.8
	상해A주 지수	2,830		1.2	10.8	12.2	1.1	-0.8	-3.3	-11.9	-18.3	-18.3
	보험	136		1.2	10.5	11.2	1.9	-3.0	-7.9	-17.3	-24.9	-24.8
	China Life	17	81.6	1.2	10.3	12.1	1.4	-4.7	-11.6	-25.9	-26.4	-31.2
	Ping An Insurance	75	170.1	2.2	11.7	19.6	2.0	-1.4	5.0	-5.0	-11.0	-8.1
	AIA	64	98.5	2.2	18.4	12.6	2.5	-5.4	-6.3	-11.0	-1.0	-3.9
	증권	85		1.1	16.3	7.0	11.5	-1.5	-3.5	-19.4	-31.3	-32.3
	CITIC Securities	13	26.7	0.9	11.5	8.1	2.0	-4.4	-10.6	-30.2	-25.1	-16.6
	Haitong Securities	7	13.0	0.6	8.4	6.8	1.6	-0.6	-4.8	-29.4	-37.7	-39.2
	Huatai Securities	11	16.6	0.7	9.6	7.7	1.9	-8.3	-8.6	-29.1	-32.1	-30.7
미국	S&P500	2,872		3.3	17.8	18.3	3.5	-1.0	1.4	3.3	3.1	7.4
	보험	391		1.4	12.1	11.0		0.5	2.2	0.6	-4.0	-2.9
	AIG	54	47.7	0.7	12.0	6.8	0.8	0.1	1.3	-0.4	-6.4	-9.9
	Metlife	46	45.5	1.0	8.7	10.5	0.7	-0.9	-0.7	-2.9	-2.8	-9.6
	Prudential Financial	98	41.0	0.9	8.1	12.0	0.6	-0.1	-2.0	-1.5	-8.4	-14.5
	증권	201		2.1	14.6	13.2	1.2	-0.9	1.1	-5.9	-9.5	-1.0
	JP Morgan	114	384.2	1.6	12.6	13.4	1.3	-0.8	-2.7	3.2	-0.4	6.9
	Goldman Sachs	234	91.7	1.2	9.5	12.8	1.0	-2.3	-1.6	0.2	-11.8	-8.2
	Charles Schwab	50	67.8	3.6	20.5	18.8	1.3	-0.8	-1.2	-12.5	-9.5	-2.4
유럽	MSCI Europe	126		1.7	14.1	10.5	1.0	-2.2	-3.2	-3.0	-1.2	-4.2
	보험	74		1.1	10.5	12.8	1.0	-0.5	-1.3	-0.3	-4.1	-4.0
	Allianz	182	90.2	1.2	10.3	11.8	0.8	-1.2	-3.9	1.6	-4.4	-5.2
	AXA	22	61.0	0.7	8.7	8.8	3.8	0.2	-1.8	-0.0	-3.8	-11.9
	Prudential plc	1,681	56.3	2.5	11.2	22.7	0.5	-3.1	-4.4	-8.8	-7.8	-11.8
	Munich Re	184	31.8	1.0	10.6	9.1	5.5	-0.9	0.1	2.9	-0.1	1.8
	증권	70		1.1	14.0	6.5	0.5	-0.8	-2.4	-2.4	-9.0	-10.8
	UBS	16	60.4	1.1	10.9	9.1	1.0	-0.6	-2.0	0.7	-11.7	-11.4
	Credit Suisse	14	38.0	0.8	12.2	6.8	0.4	-0.6	-8.5	-5.0	-14.7	-15.8
	Deutsche Bank	10	23.0	0.3	22.7	0.9	0.1	-0.8	-10.7	0.7	-26.5	-39.4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23	1,725	1,796	1,846	1,879	1,853	-0.2	-7.3	-12.3	-15.6	-13.0
		3 Year	1,912	1,910	2,082	2,212	2,297	2,134	0.2	-17.0	-30.0	-38.5	-22.2
		5 Year	2,075	2,102	2,325	2,522	2,525	2,347	-2.7	-25.0	-44.7	-45.0	-27.2
		10 Year	2,262	2,310	2,557	2,752	2,730	2,467	-4.8	-29.5	-49.0	-46.8	-20.5
일본	국고채	1 Year	-0.110	-0.111	-0.104	-0.128	-0.161	-0.145	0.1	-0.6	1.8	5.1	3.5
		10 Year	0.113	0.107	0.116	0.055	0.050	0.048	0.6	-0.3	5.8	6.3	6.5
중국	국고채	1 Year	2,853	2,845	2,628	3,224	3,283	3,834	0.8	22.5	-37.1	-43.0	-98.1
		10 Year	3,645	3,595	3,500	3,688	3,847	3,902	5.0	14.5	-4.3	-20.2	-25.7
미국	국고채	1 Year	2,507	2,447	2,421	2,288	2,038	1,732	6.0	8.6	21.9	46.9	77.5
		10 Year	2,939	2,860	2,973	2,920	2,883	2,405	7.8	-3.4	1.8	5.6	53.3
유럽	국고채	1 Year	-0.535	-0.528	-0.535	-0.574	-0.569	-0.611	-0.7	0.0	3.9	3.4	7.6
		10 Year	0.387	0.326	0.409	0.484	0.655	0.427	6.1	-2.2	-9.7	-26.8	-4.0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기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자를 돋보이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 의견은 항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